# 2020 주일메세지
## 기적은 얕은 곳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 1.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때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나라로 대표된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로 의미가 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하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려주셨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명한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 (1) 인간의 힘이 강해지면 하늘의 힘은 약해진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라.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강해질 때, 영적인 상황은 약해지고 어두워진다. (*선악과의 원리 - 자신이 힘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는 그 순간 사람의 마음에서 없어진다. 바벨탑의 의미는 인간의 힘을 극대화하는 일. 그래서 바벨탑은 심판으로 끝난다)

#### (2) 인간의 힘이 약해지면 하늘의 힘은 강해진다.

반대로, 하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강하게 나타날 때가 있다. 바로 '회개'의 순간이다. 회개는 인간의 힘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바벨탑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죄인 된 나로부터 돌아서는 것이다.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회개는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다. 아버지를 인정하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 순간 탕자의 모든 권위가 회복되고 다시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 (3) 겸손과 온유

[마태복음 11: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 예수님에게 인간의 레벨을 넘어선 하늘의 능력이 나타난 이유는 마태복음 11:29절의 말씀에 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말씀하셨다. *겸손은 왕을 아는 마음이다. 왕은 통치자를 의미한다. 나를 통치하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왕으로 앉아 있는가를 아는 것이 겸손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다. 그리고 순종하셨다.*

온유함은 내 힘의 연약함을 아는 마음이다. 내 힘과 지혜의 한계를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힘의 한계를 알았기 때문이다. 칼을 휘두룰 수 있는 권위와 힘이 있지만 그 칼의 힘의 한계를 아는 마음이다. 숨이 죽은 상태를 말한다. 톤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그래서 온유한 자에게 있는 가장 큰 특성은 환경을 초월한 안정감이다.

겸손과 온유함의 옷을 입을 때 하늘은 항상 열려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바로 예수님처럼 성숙한 그릇에 담긴다. 그리고 그 힘은 이 땅에 실재가 된다.

### 2.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하나님의 사람

#### (1) 내가 연약해지는 순간을 포착하라.

나의 힘이 약해지는 순간은 성도에게는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다. 이 땅에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한 순간이 언제인가?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가장 연약한 몸으로 사망하신 순간이다. 예수님의 연약함은 '죄인'된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나님을 능가하려는 교만과 오만의 힘이 꺾이는 순간이다.

인간을 연약하게 하는 가장 본질의 문제인 죄의 견고한 진이 산산이 부서지는 순간이다. 이보다 강한 힘이 있는가? 그러므로 내 삶에 '나의 힘이 연약해지는 순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연약함의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그곳에 하늘의 능력이 임한다.

### (2) '쌍'의 원리

'쌍'의 원리는 아주 중요하다. 생명이 만들어지는 창조의 원리는, 사람 중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룰 때이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대치가 되도록 하셨다. 남성과 여성, 하늘과 땅, 해와 달, 양과 음, 속과 겉, 죄와 은혜, 처음과 마지막, 천국과 지옥 등. 모든 것을 쌍으로 두셨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서로 다른 개념이 있어야 강조하고자 하는 개념이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얼마나 값어치 있고 소중한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원리이다. 어둠이 짙은가? 빛이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굶주림이 있는가? 배부름, 풍성함, 부유함이 있다는 사실이다. 묶임이 있는가? 풀림이 있다는 사실이다. 사탄의 영향력이 커지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능력 또한 커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십자가의 죽음이 가까이 오는가? 부활의 능력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를 보며 현 상황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나의 힘이 커지는가? 영적인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교만과 오만함이 있는가? 이때는 겸손과 온유함으로 엎드려야 할 때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 3. 하나님 나라의 능력

### (1) 누가복음 5장의 위대한 제자들

[누가복음 5:4-8]
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 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우매 잠기게 되었더라
8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제자들의 상황은 5절의 기록처럼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수확이 없는 상태이다. 열심히 했다.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을까? 이 상황을 만드신 분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자를 부르셨을까?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무엇인가?

그 답은 '제자'라는 단어에 담겨있다. 제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충만한 자들이다. 오늘 그들이 경험한 만선의 기적은 그들의 힘이 가장 연약해진 그 순간 나타났다. 제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해야한다. 아픈 자들에게는 치유를, 묶이고 포로 된 자들에게는 자유함을, 배고픈 자들에게는 배부름을 주어야 하는 자들이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 밤이 새도록 수고해도 아무 결실도 없는, 오히려 절망이 커지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이다. 이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한다.

### (2)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왜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는가? 명확하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고, 그것도 모자라 두 배 가득 고기를 채우려면 얕은 바다에서 잡을 수 없다. 얕은 바다에서 어떻게 그물을 크게 내릴 수 있는가? 깊은 바다는 그물을 크게 내릴 수 있는 곳이다. 우리의 믿음도 이 그물과 같다.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만선의 기쁨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하고, 능력있고, 놀라운지 알게 하시는 것이다.

제자들의 위대함은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순종한 것이다. 내 뜻이 아니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나를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이 제자이며,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가? 그래서 결국 겸손히 내 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릴 준비를 하라' 제자들처럼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 (3) 죄인의 고백, 그리고 십자가

지금은 내 힘을, 내 능력을, 내 경험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를 깊은 곳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야 할 때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야 할 때이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만선의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의 고백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다. 놀라운 고백이다. 죄인과 같은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입은 자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그곳이 깊은 곳이다. 그곳에 평강이 있다. 그곳에 은혜가 있다. 오늘 나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은혜가 있는 깊은 곳인 십자가로 나아가자.

그 십자가 깊은 바다 안에 안식과 평강이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 평강과 신뢰 안에서 주어지는 자유함으로 그물을 마음껏 내리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이 능력으로 실재가 될 것이다.